

Galatians 3:6~9 <Welcome to the family>

When I first came to Australia about 20 years ago, one interesting observation of Australian culture was their love of the Royal family. Every time when Prince William or Prince Harry visited Australia, they were always on the news headline, and I realized that many people are great fans of the Royal family.

One of the reasons why people are so fascinated with the Royal family is perhaps because of the unique privilege they can enjoy as the Royal family. For example, they live in the palace, guarded by a Royal guard. It is a family with a very rich history of family tradition, And it is a family with great inherited wealth and fame.

Now, when we look at today's passage, we see, Paul is talking about another great line of a family, (the family of Abraham). And we see this family of Abraham is also a family that enjoys a certain privilege. And in fact, this family line is chosen by God for a special purpose, and they are able to enjoy the wonderful benefit of God's salvation. And what's more interesting is that regardless who you are and where you are from, Paul writes that, you can be part of this special privileged family simply by faith in Christ.

So, for today's sermon, I will first talk about, what it means to be part of Abraham's family. (Paul uses the term "sons of Abraham", so I will talk about, what it means to be the sons of Abraham) Then in the 2nd part of the sermon, I will talk about, how we can be part of the privileged family. And thirdly and lastly, as we understand God's salvation through the family line of Abraham, I will talk about how this reveals God's nature of salvation, and what this means for us.

제가 호주로 이민 와 살면서 관찰한 호주의 흥미로운 문화 가운데 하나는, 영국 왕실에 대한 호주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왕실의 윌리엄이나 해리 왕자가 호주를 방문하면 그들의 방문 소식이 호주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는 걸 볼 때, 이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왕실 가문에 매료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그들이 왕가로서 누리는 특별한 특권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예로, 그들은 그 유명한 영국 근위대가 보초를 서고 있는 버킹엄궁전에서 살며, 화려한 가문의 정통과 함께, 많은 부와 유명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큰 특권을 누리는 다른 가문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으로, 하나님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 매우 특별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 가문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와 유익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며, 세 번째로는, 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구원의 속성에 대해 살펴보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1. What it means to become the "the sons of Abraham"

So, firstly, let's have look at what it means to be part of Abraham's family.

In Paul's time, when Jewish people see themselves as God's chosen people, this means they always see themselves as being the children of Abraham. If we look at John 8:33 for example, when the Jewish people wanted to prove to Jesus that, they were children of God, they claimed to be the Sons of Abraham.

And we can see, this understanding was developed through the history in the Old Testament:

In God's plan of salvation, when God saves his people from this fallen world, he chooses certain people to unfold his plan of salvation. So for example, as we can see from Genesis chapter 12, he chooses Abraham first, and from Abraham, it goes to Isaac, from Isaac to Jacob, from Jacob to the 12 tribes of Israel.

And as God chooses Abraham to unfold his plan of salvation, we can also see, God promises certain blessings to Abraham. So, and we can see the details of the blessing from Genesis 12, 15 & 17. God promises that He will have many descendants, and the numbers will be so great that, it will be the same as the numbers of the stars in the sky! And God also promises in Genesis 12:2 that, as Abraham will have a great number of decedents, they will in fact become a great nation. The word nation indicates a people with an organized government structure. So, in other words, God is promising Abraham a great Kingdom. And for this reason, God also promises in 17:6 that, many “Kings shall come from you”).

So, we see that becoming the children of Abraham would mean, they would enjoy a certain blessing from the Lord, where they would be part of God’s Kingdom, to enjoy God’s great salvation.

1. 아브라함의 자손 됨의 의미.

바울 사도 때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로 요한복음 8:33 절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구약 시대를 통해 발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인물을 택하셔서, 그 인물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펼쳐 나가심이 구약에서 발견되는 패턴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 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런 특별한 관계가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 12 지파로 발전되는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창세기 12 장과 15 장 그리고 17 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약속하시며 (창 15:5), 창세기 12:2 절에서는 이렇게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조직된 정부 구조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결국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약속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 17:6 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네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주님에게서 오는 복을 누림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므로, 그 구원의 유익을 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The question of “HOW”

Then the next question we can accordingly ask is, how can we be the children of Abraham to enjoy such blessing? Many Jewish people at that time believe that it is faith plus, their work that we can enjoy such blessing from the Lord.

So, based on Genesis 15:6, they admitted that you need faith to enjoy this blessing. But they claimed that faith alone is not good enough. This is mainly because, in Genesis 17, we see the practice of circumcision, after God made a covenant with Abraham, so led them to think and claim that, enjoying God’s blessing is always about faith plus circumcision. In principle, faith in God and obedience to the law always go together as one.

So, in such context, Paul here is trying to realign the very principle to be part of Abraham’s family. And it is only by faith that we can join this family of faith and enjoy God’s blessing!

And we see faith is the common ground that forms this family. I mean for you to be part of a family, you need a common ground, you can share with other family members. For example, as we saw from the children's talk, for someone to join the Choi family, the person needs to have the common family name of Choi, and need to have a common ancestor. Likewise, the common ground that forms this family of God is faith.

And we can see, Paul is really highlighting this common ground. In verse 6, for example, as Paul explains about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he highlights that Abraham too, was justified by faith, and this means, all of those who are justified by faith, are the children of Abraham to enjoy God's wonderful blessing of salvation.

And the fact that we can be the sons of Abraham only by faith, further reveals that this amazing privilege is the result of God's unconditional grace. We usually think that, for us to enjoy any kind of special privilege, we have to pay the right price to enjoy it. For example, when we travel to overseas by plane, and if you want to enjoy the privilege of getting in the first class of the plane, we need to pay the right price to enjoy it

2.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런 특별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에 있어서,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믿음 + 내 공로로 말미암아 이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5:6 절 말씀을 기반으로, 이들은, 어느 정도 믿음의 필연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 주장하기를, 창세기 17 장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 이후 할례를 행했기에, 이런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와 같은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 믿음과 행위는 항상 동반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하나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바울이 이런 구원의 유익을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한 가족 구성원의 개념으로 말할 때,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족을 형성하는 공통된 기반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어린이 설교를 통해 보았듯이, 누군가가 제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 씨라는 성을 가져야 하고, 공통된 조상을 가진 자가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공통된 기반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이 공통된 기반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매우 강조합니다. 그 예로 6 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 또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함을 얻은 자이기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 자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런 놀라운 특권은 오로지 무조건적인 하나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더욱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어떤 특별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더라도, 일등석에 타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But when today's passage tells us that, it is by faith we can be sons of Abraham, this great privilege of enjoy God's blessing is not the result of your hard work and effort to pay the price, but it is the very result of God's free grace!

So, when we realize that, this amazing privilege is given not as the result of our hard work, but by God's free grace, this would lead us not to brag our effort and commitment, but it would lead us to be greatly humbled.

3. The nature of God's salvation.

Now, as we understand God's salvation through the line of Abraham, this reveals some of the important natures of God's wonderful salvation.

And firstly, we learn that, as we can be part of God's family by faith alone, this tells us the great scope of God's love, where it is not only focused on a certain group of people.

So, when we look at the end of verse 8, Paul is quoting Genesis 12:3, where God says to Abraham that, "all the nations would be blessed in Abraham". This tells us that, the wonderful benefit of salvation, is not only for a certain group of qualified people, but it is for all the nations. (this reveals about the range/scope of God's love for salvation) This means, regardless of your background, whether you are poor or rich, whether you are Asian or African, all people can be part of this family, simply by faith alone.

So unlike our partial and limited love of others, this reveals the great scope of God's love, who embraces people from all nations, regardless of their race, and social class.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사실은, 이런 놀라운 특권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의 결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는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더더욱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합니다.

3. 하나님 구원의 속성.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때, 이를 통해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 구원의 속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그 범위에 대해 나타냅니다.

8 절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창세기 12:3 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새번역) 이는 하나님 구원의 유익이 받을 자격이 되는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그 범위에 대해 말씀합니다. 말인즉, 가난한 자던, 부유한 자던, 아시아인이던 아프리카 인이던, 사람의 배경과 계층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며, 결국, 이는, 제한적이며 차별적인 우리의 사랑과는 달리, 모든 계층을, 그 사람의 배경이나 업적에 상관없이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범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nd we further see that this becomes the fundament ground for us to accept one another in the union, despite the diversity. I mean look at our own church for example. We really have a diverse group of people. We have people in different age groups. We have people from teenagers to people in their 80s and 90s. We have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We have English, Australians, Scottish, Koreans, Japanese and Chinese. And despite the great difference in culture and age, how is it that we can meet as one church, and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This is fundamental because, we have the one common ground of faith, where we are justified by faith alone, and this further enables us to form a family of faith in great unity.

Secondly, as we understand God's salvation through the line of Abraham, this also reveals God's great faithfulness in his work of salvation.

From Abraham to the present time, what we really see is God's great consistency in saving his people. It is not God who changes his plan for every different generation, but despite our great rebellion and unfaithfulness, it is God who always saves his people by his grace, by giving us the precious gift of faith.

So, as we understand God's faithfulness in his salvation, I encourage you to see and find his great mercy and grace revealed in his faithfulness. It is God who saved Abraham 4,000 years ago by faith, and it is God who still saves undeserving sinners by faith in the same way today.

Hebrews 13:8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또한,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이런 진리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며, 연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캔터베리 교회를 예로 들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는, 나이가 어린 유아, 10 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80 세 90 세까지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 영국, 호주, 스코틀랜드, 한국, 일본, 중국 사람 등 문화적 배경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연합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연합하며,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이라는 공통된 기반 아래 모였기 때문이며, 이런 기반은 우리가 연합하여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오늘 구절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 구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변덕이 심하셔서 세대마다 그 구원의 방식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반항하며 불성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 가운데 늘 동일한 방법으로,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더욱 밝히 드러나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4000 년 전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자격 없는 우리 죄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